



농어촌 목회의 대안도 오직 제자훈련입니다!

고성 삼산교회 최학무 목사

“제자 훈련은 강남과 같은 교
학력층이 많은 도시 교
회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농어촌 목회의 대
안도 오직 제자훈련뿐!”이라고 단호히 주장
하는 목회자가 있다. 지난 14년 동안 제자훈
련을 실시해 온 최학무 목사(고성 삼산교회)
가 바로 그이다. 그가 이런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목회 현장 때문이
다. 그가 섬기는 고성 삼산교회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에 위치해 있다. 삼산면은 전
체 주민이 불과 3,000여 명이며, 교회 주변
에 사는 주민은 100여 명에 불과한 전형적인
어촌이다. 그렇기에 최 목사가 농어촌 목회
의 대안으로 제자훈련을 주장하는 것은 경험
에서 비롯된 자신의 목회적 간증과도 같은
것이다.

“원칙 지켜져야 열매도 있다”

최 목사는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농어촌
목회의 대안도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하는 것
일까?

“1988년에 제5회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
를 받고 돌아왔을 때, 당장에 제자훈련을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
만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훈련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30명 채 안되는 성도들 중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니 막막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10명을 모았습니다. 처
음엔 남녀 구분을 할 게 없으니깐 부부가 같
이 모였어요. 한 1년 반쯤 그렇게 제자훈련
을 마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새벽 4시에
어장으로 나가 저녁 7시에 훈련을 하러 오
는 분도 있었고, 교회 뒷편 중학교의 선생님

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숙제도 제대로
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1기생들이 제자훈련 마칠 쯤
에 ‘우리 이런 상태로는 제자훈련 받았다고 못하겠
다.’며 ‘훈련을 다시 받겠다.’는 것이에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런 것이 제자훈련은 아니다
싶었나 봐요. 결국 1기생들이 수료를 안 하고 전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번에는 숙
제도 철저히 해 오려고 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 안
수집사, 권사로 섬기시는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
회는 농어촌 교회라고 해서 제자훈련을 대충하지 않
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1기 제자반이었던 황삼도 장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먹
고살기 바쁜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
면 제자훈련 숙제 같은 건 생각도 못합니다. 1기생의
대부분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평생 한번도 해본 적
이 없었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제자훈련만 갔다 오
면 뭔가 은혜 받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게 있는 거
예요. 더군다나 제자훈련을 하면서 생활이 변하는
걸 스스로 느끼니까 이걸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싶
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1기가 끝날 때쯤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역시 1기 제자반이었던 김철현 장로는 제자훈련
인도자로서 최 목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우리 목사님은 원리원칙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
다. 제자훈련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
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생활 패턴
이나 사고방식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원칙대로 제자훈련을 진행하
셨죠.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100%는 못
따라가도 어느 정도 목사님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다보니 목사님
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
으로 생각하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목

사님은 원칙대로 움직이셨고, 지금 그 가르침은 받
은 성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특작물을 배우지 않고 사람을 세우다

그러나 원칙대로 움직이는 최 목사도 처음에는
흔들릴 때가 있었다. “대부분의 농어촌 교회가 겪
는 현실이지만, 원래 사람 수가 적으니깐 목회하는
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조
금, 저것 조금 시도해 보다가 안되면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사람보다는 재정 확보
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명
도 안 모이는 작은 교회이다 보니 배워서 경제적인
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게 뭐 없나 찾게 되더군요. 사실
목회자도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농어촌에서
돈이 된다는 특작물을 배워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농어촌이든 도
시든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
고 사람을 세우되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
된 사람을 세워야 하죠. 저도 이걸 깨닫고는 사람
세우려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사람 키우길 잘했지 특작물 하우스 했다가는 지금
이렇게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운 1기 제자반이 지금 교
회의 중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보다
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나니 저의 목회
는 한결 쉬워졌습니다. 제직회 때 100% 맞지 않아
도 성도들과 저의 비전이 공유되니까 목회에 협력
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또 각자 교회 일에 충성스
럽게 임하는 자세가 교회 전체적으로 자리 잡기 시
작했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면서 구역장같이 가르치
는 사람이 생기자 목회자의 부담감이 덜어졌습니
다.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이 생겼다는 것이지
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점점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
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평신도 지도자들만이 아니

었다. 삼산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일 학교 아이들이 많다는 점인데,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타지로 유학을 떠난 대학생들이 매 주 토요일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 학생들도 모두 주일 학교를 맡고 있는 김철환 장로에 의해 어려서부터 제자훈련을 받은 아이들이란다. 제자훈련을 통해 사람을 세운 결과, 삼산교회에는 감히 농어촌 교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목회 한계, 길이 있다”

많은 농어촌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농어촌 교회의 한계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고령화, 그리고 저학력이다. 하지만 최 목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농어촌이 고령화, 저학력 때문에, 또는 사람이 없어서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 일리는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아닌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희 교회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도 제자훈련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제자훈련 받겠다고 아주 열성이 대단했어요. 처음엔 좀 말리다가 워낙 간절하니까 허락했죠. 아나 다를까 숙제해 오는 것을 보면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자



훈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면서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형제가 우리 교회 버스 운전 봉사를 하는데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화 안 내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형제는 성경 지식 없이도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할지 압니다. 말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지요. 열심히 제자훈련 하고 지식적으로 월등하다고 해도 남 섬길 줄 모른다면 백년 제자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자훈련 한다고 출석 교인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에 한 명 전도하는 것도 힘들었다.

“전 교인을 100% 제자훈련 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맞춰서 제자반을 두 번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이 저희 교회에서도 사람이 없을 때는 제자훈련을 쉬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훈련시킬 사람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사람만 모아지면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14년이 지났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은 제자훈련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목회철학이었습니다.”

“함께 나누면 기쁨이 두배”

최학무 목사가 일반 목회자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농어촌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개최한 1999년부터이다.

“제자훈련만 제대로 하면 농어촌 교회도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농어촌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이곳 삼산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농어촌 목사님들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가 경험한 10년간의 제자훈련 사역을 농어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목회자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와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최 목사. 사실 그는 젊은 시절 서울 암사동에 개척을 준비중이었다.

“후배의 소개로 여기 삼산에 내려온 지 벌써 25년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저는 여기서 제 생명이 끝날 때까지 농어촌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농어촌 목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 목사이기에 농어촌 목회자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남다르다.

“사실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한번 해 보고 힘들면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작하길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굴뚝같은 겁니다. 게다가 참석한 목사님들의 반응이 저에게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한다는 압력처럼 다가왔습니다. 사실 도시 교회가 주최하는 세미나들이 참 많은데, 그런 세미나들 중 대부분이 도시 교회 목회어나 적합한 경우가 많거든요. 강사들도 큰 도시에서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다 보니 여기

상황과는 전혀 안 맞고 오히려 좌절감만 느끼고 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농어촌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세미나를 한다니까 ‘아, 나와 같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니깐 뭔가 들을 만한 게 있겠구나.’ 싶었나 봐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강사인 저와 참석하신 목사님들 사이에는 늘 뭔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단(예장 고신)에 속한 농어촌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여러 군데에서 세미

나에 참석할 수 없냐고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초교파적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정된 150명의 정원을 훨씬 넘어서 두 배 가까운 인원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천만 원 가량 재정을 부어 가면서 목사님들을 섬길 만한 여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 목회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하는 것뿐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세운다는 성경적 목회철학을 통해 농어촌에도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젊음을 헌신한 최학무 목사. 그는 앞으로 한국의 농어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작은 바람을 갖고 있다. 그의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그의 경험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순중 목사〉

